

능취能取와 소취所取의 봄별경계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고 싶으면
번거로움과 시끄러움과
혼침과 수면을 피하여
초저녁이나 한밤중이나 새벽에
부지런히 수행하라.

- 능가경 -

雲門僧伽大學

714-881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룰호·통권 제136호·2016년 4월 30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법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현광·편집위원·현광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현광(자연애) / 삽화·도화 / 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

磨門

불기 2560년

봄호

통권 제136호

磨門 韓國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 평생에 다시 없을 2016년입니다. 각기 발원한 바를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대교과 원겸
- ▣ Spring! 당신이 ‘봄’ 이십니다~ 봄 봄! 따스한 마음의 봄 햇살 가득 품고 지혜의 새싹을 순간순간 쑥 트읍시다. 수행에 Spring! 해요. / 사교과 혜정
- ▣ 새로 입학한 치문반 스님들을 보니 나의 치문시절을 생각하며 한번 웃어봅니다. 다시 初心으로 돌아가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 사교과 창일
- ▣ 엄마반이 되어 후원을 놀이(?) 삼아 즐겁게 대중의 공양거리를 준비하는 마음이 아주 새롭고 흐뭇합니다. / 사교과 선우
- ▣ 운문사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이 좋은 향기로 벌과 나비를 부르듯이 내 마음도 따뜻하게, 향기롭게 하여 주위 모든 이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길 발원합니다. / 사교과 탄현
- ▣ 봄은 꾸준히 찾아오는데 사집의 봄은 또 다른데요. 치문반 스님들! 치문의 봄철은 일생에 한 번뿐이니까 정말 멋지게, 힘든 기억보다는 즐거운 추억이 더 많이 남는 한 철을 살아보길 바라요. / 사집과 보경
- ▣ 점점 포근해지는 불바람의 기운도, 파릇파릇 움터오는 새싹들도 너무나 반갑지만, 무엇보다도 더 반가운 것은 신입생 스님들의 맑은 얼굴입니다! / 사집과 지안
- ▣ 잔뜩 긴장한 얼굴이지만 그 안에 묻어 있는 풋풋함과 大信心! 치문반 스님들 반갑습니다. 같이 수행정진 열심히 해보아요! / 사집과 현문

雲門

목차



- | | |
|---|---|
| <p>02 호가산 운문사</p> <p>04 죽림현</p> <p>06 교수논단</p> <p>08 운문, 운문인</p> <p>10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p> <p>12 자유기고</p> <p>14 想</p> <p>16 학인논단</p> <p>22 템플스테이</p> <p>26 차례법문</p> <p>28 어른스님탐방</p> <p>31 방부소감</p> <p>32 편지글</p> <p>34 수행의 두레박 하나</p> <p>36 수행의 두레박 둘</p> <p>38 담소</p> <p>40 대만성지순례특집</p> <p>46 이 한 권의 책</p> <p>48 운문논평</p> <p>50 운문소식</p> <p>51 등불</p> | <p>구름문을 펼치다</p> <p>나의 관세음보살님 평생</p> <p>나한신앙의 고찰 ① 일진</p> <p>봄에 다가서다 편집부</p> <p>운문사의 소나무 이야기 진광</p> <p>그 님을 보내며 정경숙</p> <p>나무 동진보안보살 도원下</p> <p>불교문화콘텐츠파크 '인드라월드(IndraWorld)'를 제안하며 ③ 혜도, 선우, 무이</p> <p>운문사에서 히롯밤 편집부</p> <p>사리암 소임이 나에게 준 선물 윤덕</p> <p>커다란 한 걸음 무진</p> <p>치문반입니다! 향광</p> <p>그리운 은사스님께 무여</p> <p>시라지는 생명 앞에서 역원</p> <p>생활 수행자 청원</p> <p>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향한다 박지호</p> <p>아미타불 대만 불교 지축上</p> <p>대만 불교 삼원三願의 힘 동우</p> <p>인드리왕의 세계 성목</p> <p>목련 유감 편집부</p> <p>사진첩 편집부</p> |
|---|---|

나의 관세음보살님

명성 / 운문사승가대학원장



철이 바뀔 때마다 나는 두 명의 새 관세음보살님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관세음보살님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설픈 나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는 우리 시자스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그들처럼 복을 짓고 나누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가까이에서 처음 만나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동안엔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일화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새 관세음보살님으로 온 그 시자스님은 옛되고 풋풋하기가 마치 홍옥 같았습니다. 젊어서 이해력도 빠르고 기계도 잘 다루어서 한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연습을 하는 나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잔뜩 상기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스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릇을 깨고서 고백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그릇을 깰까?’ 생각하며 “그래. 말해보아요.” 했더니 글쎄 “스님 이불을 다리다 조금 태웠습니다.”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덮고 자는 이불이 수세미가 되어 있어서 “다려 봐요.” 했던 것인데, 그만 이불 귀퉁이를 태운 것입니다. 태운 바로 그날 말을 하지 못하고 이를 후에야 나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그 시자스님의 마음은 얼마나 坐不安席이었겠습니까! 그 이불은 황금색으로 양 귀퉁이마다 두 마리의 학이 소나무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좋아, 아끼는 이불이기도 합니다. 속으로는 가슴이 덜컹했지만 어찌겠습니까? “걱정 말아요. 기우면 돼요.” 하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후 시자스님이 공부하러 내려간 사이에 사서스님과 함께 깃에 가려진 속 귀퉁이를 잘라서 옛날 실력을 발휘하여 쓸 만하게 기워 놓았습니다. 시자스님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바느질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말 중에 ‘맺고 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느질 용어입니다. 바느질 시작할 때 실이 풀어지지 않도록 매듭을 짓고 다 꿰맨 끝에는 다시 매듭을 짓고 남은 실을 가위로 끊어 준데서 나온 용어입니다. 매듭을 맺지 않으면 풀어져서 진척이 없고, 필요 없는 실을 끊지 않고 그대로 두면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보면 흄 집을 데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흔히 일을 깔끔하게 질하는 사람을 보고 “맺고 끊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됩니다. 짧게 보면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일 수 있겠고, 길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돌아갈 때 까지라고 볼 수 있겠지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운문도량에 새롭게 발을 들여놓은 치문반 스님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실이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매듭을 잘 지어야겠지요. 매듭을 맺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은 매듭을 짓고도 잘 빼려 나오도록 짓고, 차려하는 사람들은 쇠로 너무 강하게 매어서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스님들은 慈悲와 柔和의 매듭을 짓는다면 허술하거나 위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매듭을 짓고 꿰매고 있는 사집, 사교반 스님들은 빼풀빼풀하지는 않은지? 간격이 제멋대로이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잘못되었다면 그 시점을 알아서 과감히 바로잡고 나갈 시기로 보면 좋겠지요. 대교반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군요. 그래도 1년이란 기간이 있으니 온 도량의 유정 무정 중생들의 법문이 스님들의 귀와 눈에 다 살아 들어오도록 더욱더 세심히 살피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옥 닮은 우리 관세음보살님!

이런 좋은 법문 해 주어서 고마워요~!✿

나한신앙의 고찰 ①

일진 / 윤문사승가대학장

목 차

- I. 나한의 의미
- II. 나한신앙의 유래
- III. 나한신앙의 유입과 특성
- IV. 나한신앙도량
- V. 나한신앙유통 |



I. 나한의 의미

나한 羅漢은 아라한arhan(архат)을 음역한 말로 줄여서 나한이라고 한다.

나한은 살적殺賊, 응공應供, 불생不生으로 의역하는데 이것을 나한의 삼의三義라 한다. 즉 수행을 방해하는 도적(번뇌·망상)을 없앤다는 뜻에서 살적이라 하고, 모든 번뇌를 끊고 덕을 다 갖추어 충분히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해서 응공이라 하며, 영원히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서 미혹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생이라 한다.

나한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리로 듣고(聲聞)

깨달은 성자를 말한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 보살', '나한'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깨달음의 경지에 따른 각자覺者라는 점에서는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누구든지 일심으로 공부해서 나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나한 역시 불보살처럼 신통력을 갖춘 존재로 반드시 신앙의 대상으로서 나한들은 대개 실존인물이라는 것이다.

나한신앙의 꽃을 피운 중국에서는 도교와 결합돼 신선처럼 묘사되거나 선종의 조사가 나한으로 모셔지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나한은 복을 비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관음신앙, 미타, 지장 등 다른 신앙에 흡수돼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특별히 나한신앙도량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있고, 윤문사도 그 중의 한 도량으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윤문사의 나한신앙에 관해서는 추후의 논문에서 따로 다룰 것이다.

초기 불교 경전에서도 '아라한은 수행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존경할 만한 자'라는 뜻으로 파악되며 한역문현에서 다양하게 응공應供, 응진應眞, 상인上人, 진인眞人 등과 같은 말로 번역되었다. 또한 부처님의 10대 명호 중 하나이자 부처님 열반 후 불교 교단의 실질적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승단의 리더를 나타낸다. 아울러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로는 출가자에게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라한, 즉 나한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불교 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지만 설사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아라한이 갖는 불교내적 중도성이 손상을 입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파불교 시대까지 즉 대승불교가 일어난 후에도 아라한은 불교의 용어로 오랜 세월 동안 쓰여져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나한신앙 고찰에서는 부처님, 보살 등과 다름없는 성자, 그러면서도 분명 차별화된 나한신앙

이 어떻게 유입되었고 어떤 특성이 있으며 특별히 유행하고 있는 도량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나한신앙 유통에 대하여 간략히 고찰하려고 한다.

II. 나한신앙의 유래

나한신앙은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했다. 나한전에 모셔진 아라한은 일반적으로 16나한이며 많게는 500나한을 모시기도 하고, 그 전각은 응진전, 오백전, 팔상전, 독성각이 있으며 나한전, 응진전은 같은 성격의 전각이며 팔상전은 석가모니 일대기를 팔상성도로 분류하여 그림이나 조각으로 보신 전각인데 여기에도 제자인 아라한을 보신 경우가 있다. 독성각은 빈두루 존자라고 하는 16나한 중의 한 분을 보신 곳이다. 대개 대승불교원인 우리나라에서 나한은 부처님과 조금 다른 위치나 전각에 보신 것도 사실이나 내용으로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신앙과 별다르지 않게 유행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들이 조석으로 봉행하는 예불문에 “지심귀명례 영산당시 수불부축 10대제자 삼육성 오백성 독수성 내지 천이백 제대아라한 무량자비성 중 부처님께서 영취산에 계실 때 오래도록 세상에 남아 법을 전하고 중생을 보살피라는 분부를 받은 10대제자와 16아라한, 경전을 결집하여 후세에 불법을 전한 오백아라한, 홀로 인연의 이치를 통달하여 깨달음을 이룬 벽지불, 부처님 화상의 1250아라한 모두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귀의합니다.”는 내용은 곧 지극한 나한신앙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예경하듯 아라한께도 동일하게 예하는 신앙형태임을 알 수 있다.

III. 나한신앙의 유입과 특성

나한은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완전히 신앙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나한은 그 수가 16, 500, 1200 등 다양하지만 보통 16나한과 500나한을 말한다. 16나



〈운문사 오백전 오백나한〉

한신앙은 당나라 현장 스님이 서기 645년에 번역한 『대아라한난제밀다라소설법주기』에 기인한다. 법주기는 부처님 열반 후 800년경에 난제밀다라難題密多羅所說法住記에 기록되어 있다. 난제밀다라는 16나한과 500나한을 포함한 아라한이 쓴 것이라고 한다.

『법주기』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16인의 나한에게 불멸佛滅 이후에도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며 각 처소에서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을 제도하라는 부촉을 내린다. 이들은 모두 삼명三明, 육통六通, 팔해탈八解脫의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어서 삼계의 오탕에 물들지 않는다.

학문적으로는 경·율·론 삼장은 물론 외도의 경전에도 능통했고, 신통력도 지니고 있다. 중생들을 위해서는 침된 복전이 되었다. 스님들을 위하여 큰 공양법회나 무차대회를 열거나 스님들을 초청하여 법회를 열면 16나한과 편속들은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공양을 받으며 시주자에게 큰 과보를 얻도록 하였다. 대승보살이 하는 역할과 같은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16나한이 함께 집단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미륵하생경』에 따르면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 대가섭, 군자발탄, 빈두루, 나운 4비구가 4명의 아라한이다. 부처님이 이 4명의 비구에게 집지정법執持正法을 부탁하여 열반에 들지 말고, 영구히 남아 정법을 수호하며 미륵부처님의 출현을 기다리라는 부촉을 남기고 있다. ◎

〈다음호에 계속〉

봄에
다가
서다





운문사의 소나무 이야기

진광 / 운문사 주지

〈천연기념물 제180호〉



어디선가 봄바람에 꽃내음이 솔솔 풍겨온다. 봄 햇살이 화사한 날, 긴 겨울 어둔 땅속을 헤치고 솟아오른 새싹, 시절을 여기지 않고 피어나는 한 송이 작은 꽃, 한 줄기 바람, 맑은 물소리와 함께 구름문의 산과 들은 연초록, 연분홍 봄빛으로 곱게 번진다. 운문사는 며칠 전 긴 겨울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했다. 3일 화엄성중 기도를 하며 또 올 한 해도 대중스님들 무장무애하게 정진수행 잘 할 수 있기를 발원했다. 많은 학인 스님들이 살아가는 운문의 도량은 저마다의 향기와 빛깔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화장 세계이다. 새 학년, 새 철, 새 마음가짐으로 새싹이 돋듯 우리들 마음속에도 저마다 작은 꽃씨 하나쯤 피어난다.

오늘은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호젓한 솔바

람 길을 따라 혼자 걷는다. 운문사 들머리의 솔밭 터널은 마치 화장세계의 입구처럼 신비롭다. 솔밭은 운문사 초입부터 시작되어 운문사 경내까지 이어진다. 10여분쯤 걷는 소나무 길은 그대로 삼림욕장이다. 마냥 푸르른 듯 보이는 솔밭. 하지만 밭길을 엎추고 찬찬히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마주하면 소나무들의 깊은 상처와 대면하게 된다. 노송의 밑동에는 굵은 V자로 깊게 파여진 상처 자국이 또렷하다.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부족한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송진을 채취한 흔적이다. 운문사의 노송들은 어느 하나 이 깊은 상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그 깊은 상처의 흔적을 이루만진다. 사람이라고 다를까. 상처 없는 삶, 상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솔밭도 솔밭이려니와 운문사의 가장 유명한 명물은 처진 소나무이다. 범종루를 지나 만세루 옆에서 있는 소나무는 우리나라 5대 소나무 중 하나에 들어간다. 그 단아하고 다소곳하게 서 있는 푸르른 소나무를 보노라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선정에 든 수행자 같기도 하고 온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듯한 우주목의 느낌이 들기도 하는 신령스럽고도 장한 자태를 지닌 소나무이다.

약 500여 년 수령의 소나무는 높이가 6m, 줄기 둘레는 3m 정도 되고, 약 2m 정도의 높이에서 가지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처진 소나무>란 이름을 얻었다. 사방으로 뻗은 가지둘레는 약 30m도 넘는다. 지금도 자꾸 자라서 더 넓게 퍼지고 있다. 예전에는 소나무 옆에 등글게 모여 앉아서 야외수업도 하곤 했는데… 지금은 공간이 점점 줄어서 울타리 바깥까지 가지를 늘어뜨렸다. 밖에서 보면 순하다순한 곡선으로 부드럽지만, 안에 들어가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형상으로 신령스런 기운이 느껴진다. 가장 오랜 시간 운문사의 역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살아온 유일한 생명이다. 우산처럼 가지를 아래로 펼친 아름다운 외양 덕분에 생물학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180호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 소나무는 옛날 어떤 고승이 시들어진 나뭇가지를 꺾어서 심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임진왜란 때 이미 성목이었다 한다. 그 때 절의 건물은 모두 불탔지만 칡넝쿨에 감싸여 있던 이 소나무만은 화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소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을 때, 대지를 향하여 아래로 옆으로 늘어뜨린다. 겹히 한 자세로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있다. 가장 낮아짐으로써 대지의 모든 생명들을 다 품고 받아들인다. 하심下心! 한없이 자신의 마음을 낮출 때 일체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며 경건하게 대할

수 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통해서 ‘무설설無說說 무문문無聞聞’의 진리를 배운다. 설함이 없이 설하고, 들음이 없이 듣는 것이다. 참으로 설할 수 없는 실상의 자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다. 실상實相은 이언離言이요 진리眞理는 비동非動이다. 고요히 선정에 든 소나무! 소나무는 오늘도 말 없는 말을 설하고, 우리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다. 선정에 든 소나무는 지금 침묵의 법문 중이시다.

소나무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면서 보리수를 대신했다. 그런 흔적은 『석가세존인과보리경』에서도 찾아진다. 『한국문화 상징여사전』의 『석가세존인과보리경』 「예보리장 誣菩提場」에는 불교에서 최상의 이상인 불타 정각의 지혜, 즉 도道·지지智·각覺 삼보리의 불멸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보리장에 이른 석가와 길상서상吉祥瑞祥 보살이 구름을 타고 소나무 아래로 날아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 〈제석현의도〉에는 목욕을 하고 소나무 아래에 나온 석가에게 옷을 공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들은 모두 보리수의 대행목으로 소나무를 그리고 있다. 불교에서는 소나무가 간직한 강인한 기개와 변함없는 푸름이 본래의 불심佛心·불성佛性이 번뇌나 망상에 오염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믿는다.

운문사에서는 해마다 삼월 삼짇날에 13발의 막걸리를 물과 1:1 비율로 섞어서 소나무 주위에 뿌려준다. 올해도 삼월 삼짇날 어김없이 소나무 주위에 야트막한 고랑을 파고 학인스님들이 빙 둘러서서 반야심경 1편을 봉독하고 나서 바가지에 막걸리를 퍼서 뿌려주리라.

밖에 봄비가 온다. 솔숲의 솔잎 한 가닥 한 가닥마다 비님 한 줄기씩 모신다. 이 비님 그치면 솔숲은 더욱 짙어지고 봄은 또 대책 없이 깊어질 것이다. ❁

그 님을 보내며

정경숙 / 운문사 자원봉사자

잔설이 더러 남아 있던 2월의 어느 날,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면 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더니 살아오던 세상을 떡 놓아버리고 훌연히 스님 되겠다며 그는 그렇게 떠났다.

고운 콩 알찬 콩만 골라 콩시루에 앉혀, 온도 맞춰주고 때 맞춰 물 주고 곱게 키우듯, 난 그와 그 렇게 30여년을 살아왔는데… 세상 온갖 공해를 염마라는 이름 하나로 방어했다.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표정 없는 뚜벅이 같은 뒷모습만 남긴 채 사라져갔다. 운문사에 여식을 남겨두고 오던 그 길이, 그렇게 아득하게 느껴지던 건 미처 놓지 못한 어미의 마음이었을까. 흐려지는 시야를 천륜이라 위로했다. 부처님 됩겠다고 가는 걸음에 숨죽이며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본인의 숨죽임은 오죽했을까.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 가슴 떨려 난 아직도 물어볼 수가 없다.

부처님 시봉하는 삶이 최상이고, 부처님 법이 최고라는, 평소의 뿌리 깊은 믿음에도, 인연을 정리하는 시간은 그리 쉽지 않았다. 오로지 믿음 하나에 그 애의 아버지도 출가사문으로 떠나셨고, 여식도 출가사문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었지만, 보내는 마음에 하늘과 땅 차이가 있더이다.

행복한 마음

애민한 마음

어떻게 말로써 글로써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저 인연인 것을…

행자 시절 잘 보내고 지금은 학인스님으로, 처음 믿음처럼 여여히 길 없는 길 가고 있지만, 얼마나 참고 견뎌야 부처님 뵈올지,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아픈 만큼 부처님의 자비로움에 진정한 수행자 되어질진대 오늘도 내일도 기도할 뿐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움도 보고픔도 공부로 바꿔 난 포교사가 되었다. 작고도 큰 세상에 마주 앉았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떠서 봄이 온다”는 말처럼, 꽃 피울 수 있는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법회선열 가득한 운문사 도량,

한결음에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달려간다. 봉사하고 또 하고, 봉사의 큰 기쁨을 맛본다.

어른스님들과 도반스님들 사이에서 한층 더 무르익을 거라 생각한다.



가끔은 천륜의 그리움이 밀려들면 승만부인의
지혜를 배운다.

“승만부인은 딸이지만,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근본이 뛰어나서 부처님을 뵈옵기만 하면 금방 쉽게
깨달아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경지를 얻을 것이다.”
굳게 믿는 말씀이다. 부모는 한결같이 자식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여겨서, 어떤 삶을 안내해주면 가장
행복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시간여행 같은 삶에
여러 길이 있지만, 불법 짹 티워 꽃 피고 열매 맺어
나도 먹고 남도 주는 삶이길 발원하면서 이런 기도
를 올려본다.

위대한 당신에게

무엇이든 간절히 원했던 사람은
될 때까지 했으므로 반드시 이루었지요

당신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루한 것은 모두
전 인류의 친사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불멸의 성웅으로 칭송받을 것이요
사람들은 먼발치에서라도
당신을 보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이 세상에서 만나 함께한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만난 인연에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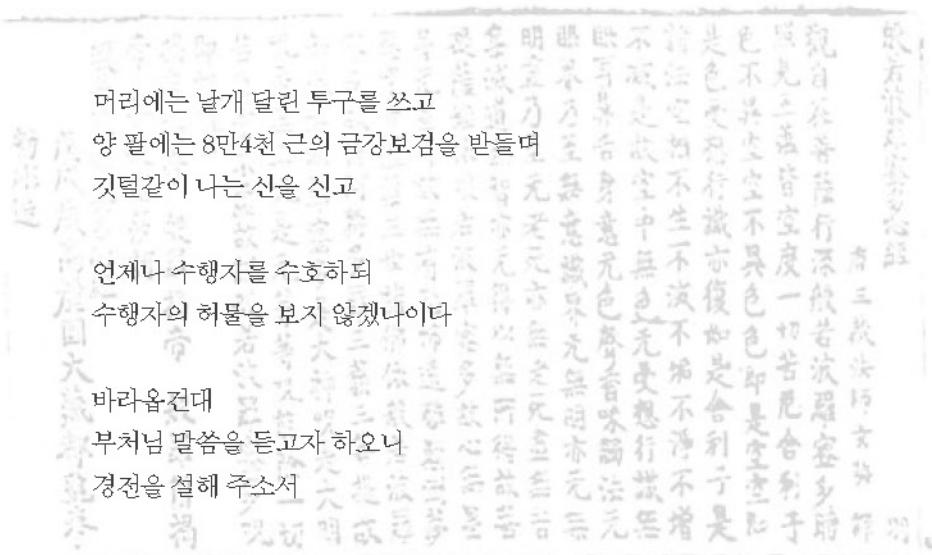
불기 2560년 봄날에 ❁

南無童子並眼菩提薩摩訶薩

四



到瓶



머리에는 날개 달린 투구를 쓰고

양 팔에는 8만4천 근의 금강보검을 받들며

깃털같이 나는 신을 신고

언제나 수행자를 수호하되

수행자의 하물을 보지 않겠나이다

바라옵건대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경전을 설해 주소서

사찰의 신중탱화 속에서 중심인물인 동진보안보살의 고귀한 서원입니다.

이 보살님은 경전을 간행할 때 권두에 경전의 수호를 상징하는 의미로 모셔지기도 합니다. 우리 회주스님께서도 화엄경을 강설하실 때 첫 장을 꾀면 꼭 소개해주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상단 예불 끝에 신중단을 향해서 불법의 정수인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

- 학장스님 말씀 중에서 -

불교문화콘텐츠파크 ‘인드라월드 (IndraWorld)’를 제안하며 ③

혜도, 선우, 무이 / 사집과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불교문화콘텐츠파크의 개념과 사례
 - 1. 불교문화콘텐츠파크의 개념
 - 2. 불교문화콘텐츠파크 조성에 참고 할 만한 사례
- III. 불교문화콘텐츠파크의 평면도와 상세 설명
 - 1. 불교문화콘텐츠파크 평면도
 - 2. 불교문화콘텐츠파크 상세 설명
- IV. 나가는 말
- V. 참고문헌

III. 불교문화콘텐츠파크의 평면도와 상세 설명

세속적인 즐거움과 성공이 결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인드라월드는 일반인에게 편안하게 다가간다는 생각에 세속적인 공간처럼 표현된 곳도 있다. 그러나 본 제안을 한 필자의 마음은 물론 인드라월드가 실제 운영된다하더라도 승가의 운영 목적은 세속의 목적과는 확연히 다르다. 조건 지어진 행복이 아니라 본디 우리가 지닌 맑고 고요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실천 공간이다. “우리 모두가 깨달은 삶으로 있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임을…… 마음은 인연을 이루는 관계의 그물망이 되고 그 자체로 우주의 인연이 되지요.”²¹⁾ 불교를 만나게 되는 삶은 인연의 순간에 인드라월드가 있기를 간절하게 발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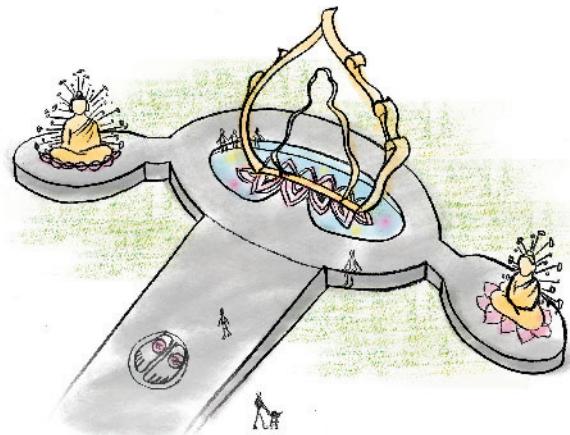
3) 화엄경길

경전은 어렵다는 마음이 앞서는 사람들에게 인드라월드의 전체를 아우르는 ‘화엄경길’은 편안한 마음으로 화엄경을 만나 볼 수 있도록 감각화한 공간이다. 천천히 걸으며 전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걸음 자체가 걷기 명상이 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적절한 위치에 친절한 안내문과 전용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4주 동안 묵묵히 해탈삼매를 즐기셨다……보리수 아래 앉아 계신 『화엄경』의 부처님은 미소 띤 채 침묵하지만, 땅과 나무, 강과 바다, 불과 바람, 해와 달 등 온갖 자연물이 살아나고……하늘나라의 천신들과 보현보살 등 온갖 보살들이 일어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친탄한다. 우주에 수많은 불국정토가 있지만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정토라고 설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살아간다. 이 정토를 비로자나불의 법신 그 자체인 화장장엄세계라고 부르며, 온갖 꽃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엄

되어 있고, 세간과 오버랩 되어 있다. 우리의 마음에서 무명의 때를 벗길 때 드러나는 우리가 사는 세간 그 자체다. 중생의 업이 초래한 과보의 세계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도처에 깨달음의 진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화장장엄세계이다.”²²⁾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

경전 내용을 함축적이고 쉽게 표현하는 기능을 지닌 변상도²³⁾를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 시대이지만, “경전의 내용에 맞게 온갖 정성을 다하여 구도하듯 봇을 들어 하나하나 숨을 죽이고 선을 그었을 화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종이에 은니 채색의 변상도, 조각도에 익숙한 각수가 단정적인 도법을 섬세하게 구사한 아름다운 목판본”²⁴⁾ 등 한 장마다 섬세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인터렉티브(상호작용) 디스플레이장치를 설치하여 다양하게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변상도를 조형물로 제작하고 난이도를 나눈 설명과 함께 화엄경길 전체에 일정하게 배치한다. 어떤 젊은이가 조형화된 변상도의 일부를 보고 새로운 불교문화 콘텐츠로 재창조하며 불법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선재동자의 구법여행을 예로 들면 환조로 표현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한다. “마지막 선지식인 보현보살은 선재동자를 부처님 나라에 인도하여 계송으로 교시해 준다. 보현보살은 실천의 보살로, 지혜가 없는 실천이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선재동자가 열 가지 지혜바라밀을 얻은 뒤 보현보살이 오른손을 펴서 선재의 머리를 만지자(마정수기)



곧 우주에 존재하는 삼매문을 모두 깨닫습니다. 선재동자가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는 장면”²⁵⁾의 경우 입체화한 보현보살의 손에 이용자가 머리를 대면 설치된 인체감지센서에 반응하며 마정수기를 만나보도록 한다. 자극히 세속적이지만 순간이라도 특별한 의식의 장면에 있어 보면 그 어떤 인연의 힘이 작동될지 알 수 없다. 어렸을 적 깊은 밤, 자식이 잘 자고 있는지 보려 들어오셔서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를 한 번 쓸어주시던 부모님의 따스한 손길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기억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라.

한편 화엄경길 일부 구간에서는 “하나의 생물로서뿐 아니라 불교 역사와 문화의 이해도구로서 존재하는 경전 속 식물들”²⁶⁾로 장엄하고 친환경적이며 관리의 효율성을 치밀하게 계획한 공간을 만든다. 참고 사례로 매년 백만 그루가 넘는 꽃식물들

21) 의상조사 지음, 정화 풀어씀, 법성계, 머리말, 법공양,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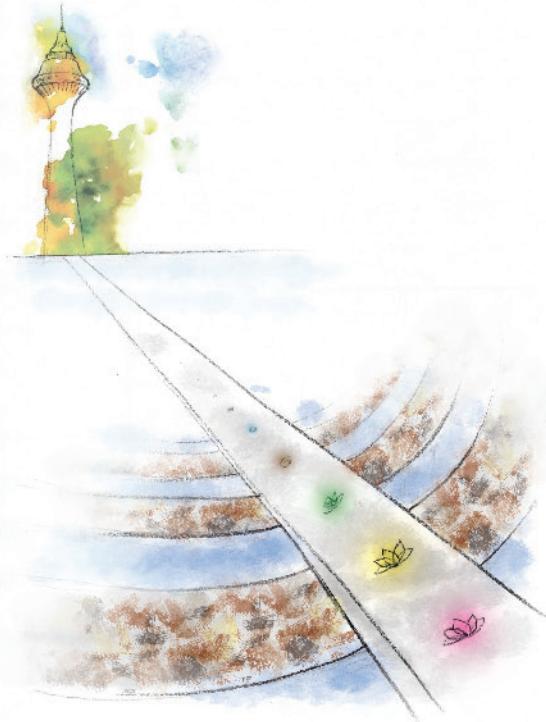
22) 김성철, 화엄사상의 현대적 이해, p.1.

23) 변상도는 “한국불교의 전통에서 제작된 경전과 문한에도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림으로 그 자체로 신앙과 예경의 대상이며, 뛰어난 예술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는 불교 특유의 의미전달 방식이다.”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kabc.dongguk.edu>)

24)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그림 백가지, 현암사

25) 정엄 지음, 나를 찾는 화엄경, p.294, 리즈앤북

26) 민태영, 불교 경전 속 식물 연구의 의의와 활용 방안, 동아시아불교문화 제21집, 2015



이 3월~10월까지 연속적으로 꽃을 피우도록 심어져 있는, 22만 평방미터의 캐나다 국가 역사 유적지인 부차드 가든이 있다.²⁷⁾

또한 어떤 구간은 거울, 촛불, 크리스탈 구슬 등을 이용한 실내외 공간으로 만든다. 경전 내용과 조사들의 비유 부분을 활용하여 불교에 쉽게 다가오게 할 수 있다. ‘맑은 물’에 설치되어 있는 커다란 명경대 조형물 앞에 서서 고요하게 스스로를 반조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연꽃으로 장엄된 뜻’에서는 생화 연꽃과 함께 유리공예로 재현된 연꽃을 설치하여 예술작품으로 감상도 하고, 연꽃으로 상징되는 불교적 이상과 교리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어린이들에게는 연꽃의 표면을 이용한 과학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여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

거울을 이용하여 공간의 가운데 촛불을 켰을 때 그 불이 시방으로 계속해서 겹쳐 있는 공간을 구현하거나, 상들리에 장식으로 주로 사용하는 크리-

스탈을 크게 만들어 서로 비추는 커팅 면에 있는 모습을 보면 중중무진세계의 연기법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두 거울이 마주 보게 설치된 공간에서는 ‘옛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양경쌍조兩鏡雙照, 두 거울이 마주 보고 서로를 비추듯 대상이면서 동시에 마음이고 마음이면서 동시에 대상임을 분명히 알아차려 자타의 분별을 떠나 사는 것을 두 모습이 없는 원융한 삶, 시공의 제한을 넘어 마음과 대상이 결림 없는 전체로 사는 것’²⁸⁾을 생각해 보게 할 수도 있다.

화엄경길에는 튼튼하지만 장엄되어 있는 윤장대를 만든다. 많은 방문자들이 그 의미를 읽고 돌려볼 수 있게 하고, 옆에는 사경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 사경의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방문객이 사경한 것을 윤장대에 두게 하고 정해진 시간에 친환경 소각로에서 소전의식을 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하는 승가의 예법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4) 팔상성도와 법계도 미로

‘팔상성도 조형물’은 탱화를 입체화하고, 각각 센서와 정보 기술을 이용한 장치들과 결합하여 현대화한 공간으로 이용자들이 불교문화를 예술로 감상하고 접하며, 불법과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한다. 입체화된 팔상성도에서 세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만져도 보고, 부처님과 앉아도 보고 사진도 찍고 SNS²⁹⁾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재해석한다. 특히 휴게공간과 함께 두어 쉴 수 있게 하면서도,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게 한 놀이터 같은 곳이다. 아울러 팔상성도 조형물 자체가 각종 불교 관련 행사, 불교 관련 음악회와 연극, 뮤지컬 등의 무대와 배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성도하신 부처님 생애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 연극, 뮤지컬 등의 전통적 문화 콘텐츠와 특수 효과 3D 홀로그램 등 CT³⁰⁾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 정보통신을 접목시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융복합 문화예술 콘텐츠로 발전”³¹⁾시키는 공

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법계도’와 ‘미로’를 합한 명칭이 적합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미로가 친숙하다. “화엄일승법계도는 신라의 고승 의상 스님이 화엄사상의 고쟁이를 간결한 시로 줄여 만든 글인 법성계를 도장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법계도, 해인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법계도’는 흰 종이 위에 붉은 도인圖印의 길(줄)과 검은 글자를 써서 만들었는데……가운데의 법法자에서 시작하여 같은 중심의 불佛자에 이르기까지 54개의 각, 7자 30구 210자의 시가 한 줄로 이어져 있다. 그 의미를 읽어 보면 많은 뜻이 중첩되어 있는데 읽을수록 마음에 새겨진다.”³²⁾ 한자를 한 자 한 자 보기도 하고, 구 단위로 의미를 새겨 보게 한다.

법계도의 의미를 친근하게 접해 볼 수 있게 방문객을 배려한 공간으로 디자인한다. 도인의 길은 경전 속 의미 있는 식물이면 더 좋고 150cm 정도의 판목으로 만든다. 검은 글자는 육면체 기둥에 한자 를 5면에 새기고, 기둥 내부엔 일반전기와 태양광 전원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의 손길이 닿으면 센서 감지에 의해 가동이 밝아진다. 어린이는 놀이로, 청소년과 성인은 걸어가면서 화엄사상을 만나게 된다. 법계도 안에서 움직이는 이들에 의해 밝혀지는 불빛, 휴게 공간에서 구산필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이용자들 등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안한 공간이다.

법계도 미로 옆 휴게 공간에는 인드라월드를

위해 특별하게 주문 제작한 ‘부처님과 불교문화 관련 레고’ 블럭으로 법계도는 물론이고 불교의 성지, 석굴암, 탑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세계의 어린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만나는 블록의 대명사 레고로 만든 세상인 ‘레고월드’를 참고할 수 있다. 아직까지 ‘레고’ 블록류에 불교문화를 콘텐츠로 한 제품은 없지만 인드라월드를 만들며 국내 블록 기업에 불교문화상품으로 주문 제작한다.

5) 구산필해, 전망대, 미니어처관, 영상관과 도서관

구산필해와 수미산을 조형화한 공간으로 일반인과 어린이들에게 친숙하도록 테마공원처럼 만든 공간이다. 전망대의 가장 높은 층의 중심에는 부처님을 모시고, 그 둘레에서 예경과 좌선을 할 수 있으며, 그 아래층에는 인드라월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전망대 주변으로 구산을 표현한 조형물과 바다를 나타내는 물이 대지 아래 표현된다.

미니어처관은 부처님 성지, 세계의 불교 성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 미니어처, 기복불교 관련 공간, 경전 속 동물 시작화, 육도윤회 관련 장면, 오토메타로 만든 작은 인형 동자승이 탑돌이 장면 등을 축소하여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가보고 싶어도 건강상의 문제,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가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취를 느끼게 한다. 미니어쳐 관련 전시의 예로 운주사의 천불천탑을 미니어쳐로 세운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27) 캐나다 국가 역사 유적지 부차드가든 (<http://www.butchartgardens.com>)

28) 의상조사 지음, 정화 풀어씀, 법성계, 법공양, 2006

29)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세계 최대의 SNS인 페이스북 이용자는 2013년 상반기에 11억 명을 넘어섰다.” 미래기술백서, p.4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30) CT(Culture Technology, 문화기술): 문화 콘텐츠, 생활 문화(인터넷 세대의 문화, 디지털 문화콘텐츠 기술 등의 정보통신 기술), 문화 유산을 포함하는 기술.

31) 미래기술백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32) 의상조사 지음, 정화 풀어씀, 법성계, 법공양, 2006

미니어처 탑을 만들고 설치하며 선한 발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영상관 중앙에는 부처님의 생애와 교리, 불교문화 관련 내용을 수준을 나누어 쉽게 접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4D영상, 영상 등으로 제작된 것을 상영토록 하고, 한 부분에는 세대별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일들을 소재로 해결점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을 수 있게 제시하는 생활 속 불교 관련 전시를 한다.

도서관은 대상 계층별로 경전에서부터 만화책에 이르기까지 불교 교리, 불교문화 관련 책들을 비치한다. 딱딱한 책상보다는 편하게 쉬면서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E-book은 물론 스마트 기기와 인드라월드 전용 앱의 불교문화 관련 내용을 종이 책으로도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현 시대에 스마트 기기의 영상물을 이용해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경전 내용을 스토리텔링하여 제공하고 생활에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공간도 만든다.

6) 온라인 ‘가상 인드라월드’와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윤리지침

이용안내센터를 통과하면서 입장권과 함께 ‘인드라월드 전용 앱’을 받고 전체 공간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개별 방문객들의 경로와 각 공간과 콘텐츠별 체류시간과 이용방식을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기록할 수 있다. 이는 추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전체 공간에 대한 활용도와 개별 대상 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의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상별로 진행되는 인드라월드의 명상프로그램, 절 수행과 사경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서 앱을 활용해서 체험을 해보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경험을 기억하며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기술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다면 VR기기와 연계하여 더 생동감 있게 가상의 경험을 일상의 현재로 바꾸어 갈 수 있다.

초기에 인드라월드는 실제 인드라월드 이용안

내를 위한 인터넷사이트지만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드라월드를 가상체험과 가상여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든다. ‘가상공간 불사’를 하게 되는 것 이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단의 단위 사찰에서 사용가능하도록 VR용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도 있다. 이용자는 가까운 지역의 각 단위 사찰에 있는 이 기기를 이용하여 인드라월드에 직접 오지 않아도 다양하게 진행되는 명상 프로그램 등에 가상공간에서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든다. 현재 IBM의 스마트 룸인 드림스페이스, MS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홀로플렉터 등 가상과 현실을 연계할 수 있는 과학기술들이 몇 년 후에는 상용화 단계에 있을 것이다. 다양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불교문화를 만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속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깊게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일상과 분리 시킬 수 없는 가상 공간과 인공 지능 등 과학기술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부분이다. 탄허 스님께서는 “우리 사회를 진정한 화장장염세계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우리 불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정보통신문화에 ‘윤리’의 지침을 제공하고 ‘자비’와 ‘지혜’의 거름을 대는 일일 것이다.”³³⁾라고 예측하였다. 인류가 살아온 그 어떤 시대보다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현재, 인드라월드를 실제 세상과 가상 세계를 연계한 의미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고, 활용과 관련한 윤리지침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한다.

IV. 나가는 말

본 제안을 생각해 보면 한 순간 마음이 일어나 시작되었다. 지금 이 순간, 적어도 불기 2560년 현재 이 글에 있는 인드라월드의 모든 것은 발원이기 때문에 직접 가볼 수 없다. 그러나 또 없는 것도 아

님을 안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자연환경과 적절한 위도에 있는 곳에 불교문화를 테마로 한 세상이란니 세속적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출가자가 사는 세상은 공원도 박물관도 체험장도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 실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지도, 살아온 것에 비추어 마련된 테마는 승가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다. 속세의 사회적 잉여는 넘치지만 여전히 범민과 고뇌 속에서 나온 것이며,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사회적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학인의 본분으로 돌아가 공부하고자 한다.

해탈하신 부처님께서도 의지처가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고백하셨다. 깨달음을 성취하신 뒤 아직 아무에게도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지 않으셨을 때에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두고 진지하게 사유하셨다. 세존께서는 “참으로 나는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리라”라고 결론지으셨다.³⁴⁾

그 이전의 어떤 세상보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임을 의심하는 이는 없다. 다양한 세상이 조화롭게 상즉상입의 중중무진법계연기의 세상임을 명확하게 알게 하는 힘의 원천이 불교에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고 싶다. 본 제안이 실현되어 인드라월드에 왔던 인연으로 불법이 의지처가 되어 행복하기를, 그저 자연을 즐기듯 인드라월드를 천천히 걸으며 제대로 쉬고, 맑고 밝은 행복감을 가지고 일상을 살기를 발원한다.

불교의 깊은 뜻을 알고 표현하기엔 모자란 것 이 많다. 한없이 부족한 졸고를 쓴 과보를 받을 때

선심을 유지하며 기꺼이 받을 준비를 한다. 명확히 알고 계시는 선지식들께서 시방법계에 두루 펼쳐 주시기를 발원한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V. 참고문헌

1. 달라이라마, 삶을 이야기하다, 북로드
2.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연구 보고서
3. 붉고 푸른 장엄의 세계, 불교중앙박물관
4. 김성철, 「눈으로 듣고 귀로 읽는 봇다의 과학 이야기」, 침글세상
5. 정엄 지음, 나를 찾는 화엄경, 리즈앤북
6. 의상조사 지음, 정화 풀어씀, 법성계, 법공양, 2006 ●

33) 탄허스님의 예언과 정보통신문화, 불교평론 봄호 2003

34) 초기불전연구원 각목스님 칼럼

운문사에서 하룻밤

Georgia University Student's Comments
in Unmunsa Templestay

사진 : 자명 스님 / 영문번역 : 법여 스님, 진오(上) 스님

지난 3월 8일 미국 조지아 대학 학생들이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기 위해 2박 3일의 일정으로 운문사를 방문했다. 스님들과 함께 예불에 참석하고 밤우를 뿐서 공양하는 등 새로운 경험을 했던 학생들의 한마디를 들어보자.





The last two days have been an unbelievable experience. Just walking around the grounds and looking at the beautiful landscape was worth the trip.

Combined with the amazing architecture, welcoming atmosphere, and meditation/ renewable, makes this unforgettable trip. Everyone I met was friendly, happy and really showed me compassion and warmth.

Thank you!

Favorite spot: Tea room and surrounding gardens.

지난 이를 동안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단지 땅 위를 걷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만으로 이 여행의 가치가 있었다. 광장한 건축물들과의 결합, 환영하는 분위기와 재생 가능한 힘을 주는 명상은 잊을 수 없는 여행으로 만들어 주었다. 내가 만난 모든 스님들은 친절하고, 행복하고 진실로 나에게 열정과 따뜻함을 보여주었다.

감사합니다!

가장 좋았던 장소 : 다실과 정원

Jonathan Adelman



My experience here at the Unmunsa temple has been absolutely wonderful. All of the nuns have been so kind and welcoming, and I feel incredibly happy and lucky to be here. I recognize how big of privilege it is to be a part of the morning and evening chantings, the formal meal, tea time, mediation, and everything else we have been able to do here. The unmunsa temple and the surrounding nature are very beautiful and peaceful, and I hope to take this sense of calm and tranquility with me when we leave. I have learned so much by being here, and I thank everyone here at the Unmunsa temple. I felt welcomed and respected and comfortable, and the





Fellowship is lucky to share in this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Unmunsa temple.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have given us, and I hope to see you again, in this life or the next.

Favorite place: Plum blossom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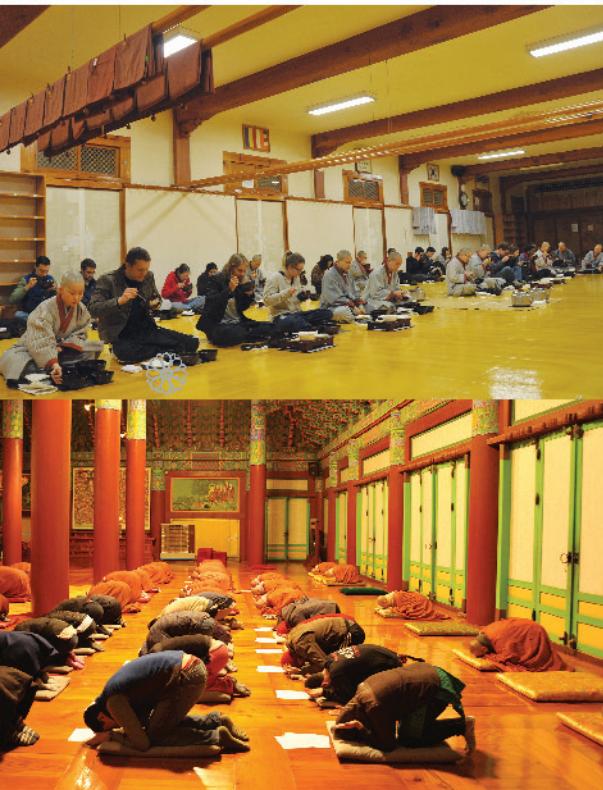
운문사에서의 나의 경험은 굉장히 멋있다. 모든 비구니 스님들은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들을 맞이해 주었고, 여기에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운이 좋다고 느낀다.

나는 아침, 저녁 예불과 밤우 공양, 명상 그리고 그밖에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안다. 운문사와 주변의 자연은 매우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내가 이 곳을 떠날 때 이 고요함과 평온함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운문사에 있는 모든 스님들께 감사 드린다.

우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시고 존중해주심을 느끼며 편안했고 운문사와 특별한 관계를 나누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서 행운이다. 저희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에 매우 감사드리며 이번 생에서 혹은 다음 생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가장 좋았던 장소 : 매화 나무

Sincerely,
Sierra Runnels



The past two days at Unmunsa Temple, I am so grateful to have experienced the kindness and generosity of everyone I met here. We were welcomed with smiles and snacks, but the most memorable gift wa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daily rituals of the students and learn from their teachers. After this visit, I feel more thankful for all the love and relationships in my life and I would like to practice living in the present everyday. From drum lessons to formal meals, memories from this trip will stay with me forever. Thank you for everything, to the nuns who made their guests feel at home.

*My favorite small space in this temple was the room with 499 Buddhas and the towers with the fish drum, bell, and large drum.

Widely speaking, however, I think each individual small part of the temple is beautiful, but when they are put together, they create one even better place.

운문사에서의 지난 이를 동안 내가 여기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친절과 관대함을 경험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한다. 우리에게 미소와 다과로 환대해주었다.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학인 스님들의 일상에 참여하고 그들의 스승 스님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이 방문 후, 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사랑과 관계에 더 감사함을 느끼고 현재의 오늘을 사는 연습을 하고 싶다. 법고 연습에서부터 빨우 공양까지 이 여행에서의 기억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들을 집에 있는 것과 같이 편안하게 만들어준 스님들께 매우 감사드린다.

* 이 절에서 가장 좋아한 작은 공간은 499분의 성인 이 계시는 오백전과 목어, 운판, 대종, 법고가 있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넓게 이야기하면 절의 각각의 모든 부분들이 아름다웠고, 그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더 나은 하나를 창조한다고 생각한다.

Shuchi Goyal



사리암 소임이 나에게 준 선물

윤덕 / 사집파

안녕하십니까? 사집반 윤덕입니다.

차례법문 순서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정신없이 방학을 보내고 개학 무렵 사리암 소임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치문 때 처음으로 사리암에 단체 참배하러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유명한 나한기도 도량이라는 소문만 들은 상태라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사교반, 화염반 상반스님들이 종무소에서 소임을 살고 있다고 해서 인사드렸는데, 스님이 기도를 접수한다는 게 참 낯설었고,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스님들이 계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사리암 소임을 살아보니, 신도 분들은 스님들이 기도접수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 없이 오히려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간절한 소원을 듣고 축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접수를 하면서 꼭 법당에서 올리는 기도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든 그렇겠지만, 사리암에서 기도 접수를 받다보면 참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느 날 저녁 무렵, 혼자 와서 신도등록신청서에 따님 이름 하나만을 쓰고서 속득쾌차를 요청하며 눈시울을 적시는 쳐사님을 보고 순간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동요할 수 없으니 묵묵히 접수해 드리며 가시는 뒷모습에 “소원성취 하십시오~”라 말해봅니다.

각각의 사연에 따른 소망들이 간절히 줄지어 접수됩니다. 접수 자체가 축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따스한 말 한마디와 지극한 관심의 눈빛, 성취되길 발원하는 기운이 신도 분들에게 전달되어 긍정적인 힘이 됩니다.

어떤 분은 종무소에 들어서자마자 삼배를 하시고 앉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의 당혹감이란…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스님에게 삼배를 올리는 것인 줄 알지만, ‘과연 내가 삼배를 받을 만한가?’라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사리암 소임뿐 아니라 중노릇을 잘 해야겠다’라고 다짐도 함께 하게 됩니다.

사리암은 신도 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40년을 다니셨다는 분도 드물게 계시고, 거의 10년 넘게 다니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신도뿐만 아니라 객스님도 끊이지 않고 기도하러 오십니다. 7~8년 전 졸업한 스님은 철야기도를 하기 위해 오셨는데, 본인 치문 때 얘길 해주었습니다. 치문 때 쉬는 날이면 갈 곳이 없어서 아침 일찍 사리암에 올라 1000배씩 하고 내려왔습니다. 사리암 소임 때도 스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이루어졌다고 지금도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마다 1박 2일로 철야기도 하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리암은 1008개의 계단을 올라야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도 분들은 이 사바세계에서 이루고자 하는 각자의 작고 소중한 소망을 간절히 발원하며 한발 한발 내딛습니다. 나반 존자님의 중생을 향한 자비심과 신통자재함을 믿으며 1008개의 계단을 오릅니다. 사리암 도량으로 가는 이 길목마저도 기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사리암의 인등기도는 다른 도량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함이 있습니다. 바로 가로등 전기 비용이지요. 정성스럽게 기도하러 오시는 모든 분들의 걸음, 걸음을 비추는 것이 인등기도가 됩니다. 참 수승한 우리 사리암 신도 분들은 이러한 취지의 인등기도를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산골짜기마다 울려 퍼지는 ‘나반 존자’ 정근과 걸음걸음 정성스러운 소망의 마음들이 사리암에 가득합니다.

‘삿될 사邪, 여월 리離’ 삿된 마음의 터럭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리암. 일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사리암 나반 존자님. 삿됨이 없는 간절한 마음과 의지가 우리의 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반 존자는 부처님 열반 후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까지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분으로 천태산 위에서 홀로 선정 닦으며 열반에 들지 않고 미륵불을 기다리는 존자로 독성이 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크고도 자비로운 원력인가요? 중생을 어여삐 여겨 열반에 들지 않고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까지 중생을 살펴 구제한다는 이러한 대원에서 깊은 감동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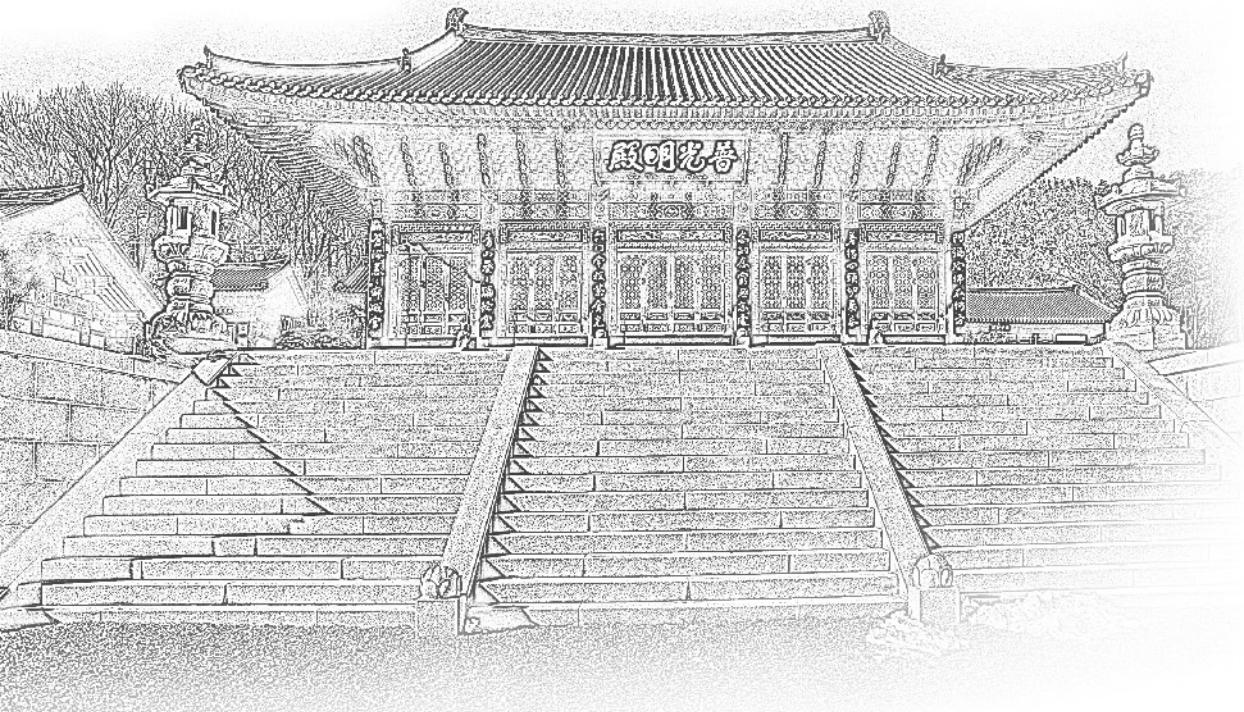
나반 존자의 대자대비한 원력의 도량 안에서 숨쉬는 우리들은 정말이지 복이 많습니다. 우리의 원 또한 나반 존자와 같아지기를……. 그러한 대원을 세울 수 있는 큰 에너지와 지혜, 화합이 나와 너를,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저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커다란 한 걸음

무진 / 대교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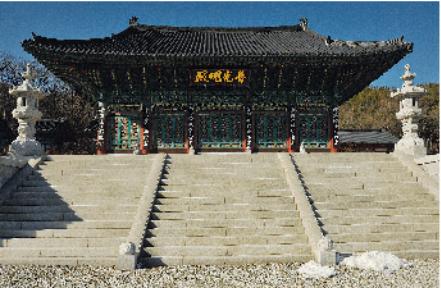


“난 부처님 법 따라 사는 사람이지, 선지식이 아닌데.”

온 연유를 물으시기에 “선지식 탐방하려 왔다” 답했다. 대뜸 이런 대답이 온 거면 잘못 왔네.” 할 말 잊고 바라보니 안경 뒤편의 눈이 유한 곡선으로 웃는다. 손짓으로 설악은 남자들을 불러 “먼 길 왔으니 목부터 축이라” 하신다. 불호령으로 이름 높던 팔공산 호랑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맘씨 좋은 노스님만 남는다. 경북 군위 법주사에서 뵈 전국비구니회 11대 회장, 육문 스님의 첫인상이다.

스님이 된
선비의 딸

속가 부친은 선비셨다. 육남매 중 막내딸이었던 스님을 서당에 보내어 글을 배우게 할 정도로 교육에도 눈뜬 분이셨다. 그 덕에 어지간한 글은 출가하면 17세 전에 다 폐었다. 늘 글을 가까이하시는 것은 물론, 『아미타경』을 손에서 놓지 않던 우바새였다고 회상하신다.



1



3



1 법주사 보광명전 2 운문사를 방문하신 육문 스님(가운데)
3 군위 법주사 왕맷들 – 경북민속자료 제112호. 지름115cm, 두께15.5cm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법주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던 사찰로, 당시 매우 큰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속가의 그러한 불연佛緣 때문인지 스님과 아미타부처님의 연은 유난히 깊다. 현재 화주로 있는 은해사 백홍암도, 주지를 역임 중인 군위 법주사도 모두 미타도량이다. 입 속에 자주 품어 읊는 계송 역시 ‘아미타불재하방…’이라고.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궁금증이 있어 여쭙다. “스님 법명의 육문六文이 혹시 ‘나무아미타불’ 육자염불 아닙니까.” 동진童眞의 미소로 “나도 모르오” 하며 놓을 건넨다. “다들 육문이 문 문門인 줄 아는데, 글월 文文이라 하면 고개를 갸웃해. 대한민국 비구니 중 육문은 나 혼자라 못된 짓도 못하오.”

無常한 세상에서 無常을 여의려면

스님의 출가계기는 무상無常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었다. 세남 16세에 고작 5세였던 조카가 세상을 떴다. 눈 비비고 보니 삶은 고 苦였다. 서당을 오가는 길에 만나 알게 된 스님을 찾아갔다. 출가 의지를 밝히니 사월 초파일인 모친 회갑을 치르고 오라고 하셨다. 그렇게 17세 소녀는 수행자의 길로 첫 발을 내딛었다.

당시 스님의 머릿속은 무상에 대한 환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큰방 스님들께 여쭈었다. “무상한 세상에서 무상하지 않게 살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참선해라.” 스님은 화운사 강원 입학 1년도 되지 않아 동화사 양진암에서 첫 방부를 들인 뒤, 꼬박 3년을 정진했다.

理事는 不二요 修行은 統一이라

스님의 이력履歷을 들다보면 새삼 理와 事는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의 경계는 없는 말이다. 선방수좌와 원력행자의 사이를 넘나들며 방편의 차이일 뿐 궁극적인 수행의 목적지는 하나임을 몸소 보이는 것이다.

스님은 71년 내원암에서 원주를 살 때 도반들과 뜻을 모아 국내 최초로 산철 결제를 추진했다. 이후로 비구 선방에서도 산철 결제가 생겼다. 10년 간 선방에 앉아 있다 1981년 감원監院 소임을 맡아 은해사 백종암에 갔다. 지금이야 깨끗한 도량이지만 당시에는 너무 낡아 비가 새는 지경이었다.

“부처님, 제가 불사를 시작할 건데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발원하고 시작한 불사가 무려 17년이나 이어졌다. 대작불사大作佛事였다. 나랏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를 이루기까지는 근검과 절약 정신이 밀바탕에 깔려 있었다. 감원 소임을 살 당시 스님은 초심 납자들에게 정랑 휴지 사용법부터 가르쳤다고 한다. “작은 불 일은 두루마리 휴지 한 칸, 큰 건 두 칸. 넘으면 경책이었소.”

公心으로 練願할 때 加被를 만난다

스님은 “도량 내외 모든 일이 불보살님 가피”라 설명한다. 백종암에 있을 때였다. 돌을 등으로 지고 나르며 고된 일을 할 때이기도 했다. 당장 먹을 쌀이 떨어져 갔다. 한숨짓고 있을 때 쌀을 실은 차 한 대가 왔다. 신고 온 처사의 말이 그랬다. “꿈에 자꾸 부처님이 나와선 그러시더이다. 어디어디에 쌀을 싣고 가라고.” 불보살님의 가피였다.

스님은 단 한 번도 17세의 결심을 후회한 적이 없다. “무슨 복이 있어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됐나” 감탄할 뿐이다. 그렇기에 늘 발원하고, 그 발원의 힘이 가피로 돌아올 것임을 믿는다. “세세생생 부처님 법 여의지 않고, 정법을 만나지이다.”

오늘 내 발걸음 後學의 이정표 되리

스님에겐 수행의 지침표와도 같은 계송이 있다. 바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란행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今日我行蹟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이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어찌 해태懈怠하게 살 수 있겠나.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중해야지.”

마지막으로 운문사 학인들을 위한 말씀 한 구절 청했다. “선시불심禪是佛心, 교시불어教是佛語라.”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이다’라는 서산대사 법어法語가 흘러나온다. 언제인가 강원을 그만두고 은사스님 시봉하며 선 공부하겠다는 상좌스님에게도 이리 말씀하셨다고.

“경전의 부처님 말씀마다 수행자 갈 길 나와 있건만, 어찌 그 공부가 환희롭지 아니하겠소? 금생에 우리 부지런히 공부합시다.” ☯



육문 스님께서는 …

- 1946년 충남 서산 출생
- 1962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 수지
- 1973년 보은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 1969년 경북 양진암에서 수선 안거 이래 25안거 성만
- 1982년 은해사 백종암 감원 역임
- 1994년 제11대 중앙종회의원 역임
- 2004~2014년 전국비구니선원 선문회 회장 역임
- 現 경북 군위 법주사 주지, 은해사 백종암 회주, 선원수좌복지회 이사,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치문반입니다!

향광 / 사미너파



운문사에 방부드리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시간을 쪼개고 아껴쓸 수 있는 생활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수행자가 공부하는 데 많은 장애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문사 강원에서 결코 경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대중 속에서 나를 닦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운문사 강원의 힘도 있지만
사실 본인의 힘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사님들 어른 스님들의 가르침을 지혜롭게 받아들여
나의 힘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요즘 스님'이라는 타이틀로 저희를 너무 아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절박함 속에서 본인의 길이 잘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해지고 싶습니다.
저희 반에 공주과(?)는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굴려주세요.
간식(과자)도 많이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움이 시주물의 감사함과 무서움을 간과하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문반,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참된 공부가 무엇인지 도반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탁마하며 공부하겠습니다.
파이팅! 🎉





그리운 은사스님께

무여 / 사미니파

스님 건강하십니까?

매화향이 법계에 진동하는 이곳 운문사에서 치문반으로 지내고 있는 무여입니다.
스치는 바람 타고 마음 깊이 스며드는 매화 향처럼 그렇게 그리운 스님, 그곳 불토
사는 편안하십니까?

첫철이라 통화도 할 수 없어 공중전화기 앞을 지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쯤 봄맞이 하신다고 일이 많으실 텐데… 스님의 건강이
크게 걱정됩니다.

늘 기도합니다. 스님 늘 편안하시길!

스님, 저는 더없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나날을 보냅니다. 어제는 사리암 참배와 문
수선원에 들려 어른스님께 차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차 맛이 얼마나 좋던지. 그러
고는 밤에 그렇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제
복에… 이렇게 한량없이 베풀어지는 것들이 다 스님 덕분인 듯하여 스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무될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다 스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스님! 오늘은 목련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무엇이든 같이 찬탄하며 기뻐하던 지난
나날들이 떠올라 화창한 봄날이 웬지 좀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야외에서 목련차로
차담하기 참 좋은 날이라 스님과 함께였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좀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치문반이 24명으로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라
부담해야 할 소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파일도 운문사에서 보내게 될 듯합
니다. 그 전 주나 초파일 끝나고 한 5~6일 정도 짧게 방학이 있습니다. 언제 뵙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는 날까지 몸과 마음 잘챙기겠습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스님 늘 감사합니다.

불토사 대중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안부 전해주세요. ☺



사라지는 생명 앞에서

덕원/사집파

불교에서 가르치는 팔고八苦 가운데 네 가지가 바로 생, 로, 병, 사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다른 생과 사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말할 수 있는지 체감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삶 속에서 낯선 죽음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현재의 삶을 더욱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 삶 속에서 잊히지 않는 세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살면서 최초로 만난 죽음은 친할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장례를 집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염 해놓은 할머니의 관이 제 방에 놓여 있었는데 아무 것도 몰랐던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에 들어가 옷장을 열다 실수로 관 뚜껑을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푸르스름하고 차갑게 보이는 할머니의 낯선 모습에 놀라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같이 웃고 이야기하던 포근하고 따뜻한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한데 관 속에 누워계신 나무토막 같은 할머니의 모습은 어린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릴 적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집에 놀러온 친구가 날짜가 한참 지난 우유를 강아지에게 먹였고 우리집 강아지 ‘초롱이’는 배탈이 났습니다. 서둘러 병원에 데려갔지만 수의사는 이미 손을 쓰기엔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배가 곤 터질 것 같이 부풀어 오른 초롱이는 괴로움에 숨을 헐떡이며 애처롭게 깅낑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고통을 덜어주고자 소화제환을 물에 녹여서 밤새 초롱이에게 먹였습니다.

다음날이 되자 초롱이의 배가 조금씩 꺼지더니 이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멀쩡히 잘 돌아다녔습니다. 너무 다행스럽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 앞에서 못 보던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상자를 열었더니 초롱이가 죽은 채 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은 밥도 먹지 않고 내내 울었습니다. 항상 저의 등하굣길을 배웅해주던 초롱이가 제가 탄 학교버스가 온 줄 알고 뛰어 나왔다가 시내버스에 치여죽은 것입니다. 어른들은 저를 달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아니면 이미 죽었을 강아지인데… 운명은 어쩔 수 없나보다. 그래도 네 덕분에 며칠 더 살았으니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세 번째 죽음은 최근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은사스님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은사스님

의 어머니는 위암말기로 투병중이셨습니다. 지난 가을 만났을 때만 하여도 잘 움직이시고 말도 잘 하셨던 분이신데 이번에 뵈었을 때는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서 손을 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했지만 이미 신장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사흘이 고비라며 보살님을 보내드릴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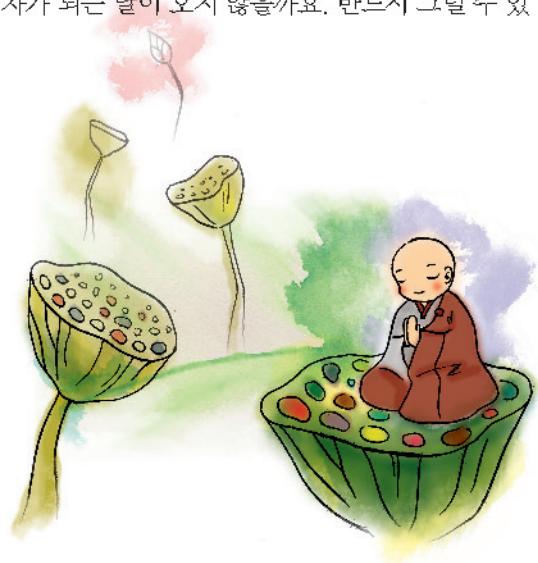
제가 보살님께 가서 인사를 드릴 때 보살님은 가쁜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빨리 나아가… 우리 시님 공부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지금 제 앞에서 살아 숨쉬고 말하고 있지만 목전에 죽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보살님의 심정이 어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보살님의 상태가 불안했고, 너무 두렵고 슬프고 안타까워 심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일까?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에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은사스님께서는 담담하게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평소와 별 다름없이 생활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두 죽음과 다르게 은사스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혈육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깊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수행자와 세속인의 차이에 관해 되짚어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수행자와 세속인을 가르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과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수행자가 평소 수행을 잘했는지, 일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잘 살았는지는 관 뚜껑을 닫아보아야만 안다는 어른스님들의 말씀도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제겐 죽음이라는 것이 저와는 아주 먼 이야기 같습니다. 제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마주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으로선 소중한 인연들이 떠나가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커다란 파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았고, 죽음을 일상의 삶처럼 대하는 그 모습을 선지식으로 삼아 끊임없이 수행해나가다 보면 은사스님처럼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에, 또는 스스로의 죽음에 임해서도 스스로를 잊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큰 수행자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럴 수 있기를 부처님 전에 지성으로 발원해 봅니다. ●



생활 수행자

청원/사교과

처마 끝으로 똑·똑·똑 빗방울이 땅을 적십니다. 어느새 빗방울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 빗물이 고이 고웅덩이를 만듭니다. 출가한 지 벌써 사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수행자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을까? 부끄러운 지난날을 돌이켜봅니다. 불교 용어 중에 훈습이란 말이 있습니다. 옷에는 향기가 없지만 향이 그 향기를 옷에 배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운문사에서는 4시에 기상하여 예불·발우공양·수업·율력·입선 등으로 하루하루가 규칙적으로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얼마나 깨어 있는 마음으로 출겁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모든 게 풍족한 도량에서도 나의 번뇌는 그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출가인·수행자라는 본분도 잊어버린 채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과 불평불만도 생겨납니다.

최충우들 나의 치문과 사집시절 무엇이 그리도 바쁘고 신경 쓸 것이 많은지 한 쪽 미간을 찌푸린 채 인상파가 되어 급하게 돌아다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쉴 새 없이 날아드는 발로참회와 어리버리한 실수들, 율력이 많은 날엔 지친 몸을 감당하기 벅차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처럼 잡이 들었다가도 새벽 4시 도량석 목탁소리를 듣고 어느새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나오면 어디선가 다시 힘이 솟아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친 생활 중에서 기도는 활력을 주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갓 출가했던 행자시절 삼천 배 21일은 환희심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참을 수 없는 다리의 고통 또 한 견뎌내야 했습니다. 행자생활을 마치고 사미니 수계 교육장에서 삼보일배를 통해 출가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울렁거림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운문사에 들어와 맞이한 첫 치문반 봄방학에는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했습니다. 도반스님들과 열심히 독송하고 땀 흘리며 절 하다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치문을 거쳐 사집반 첫 철 저는 운이 좋게도 ‘작암전’ 부전 소임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평 남짓한 아담한 공간, 전기도 없는 그곳엔 온화한 미소의 석조 여래 부처님과 무섭기 보단 우아한 자태의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매일 새벽 문을 열고 촛불을 붙이면 은은한 금빛 조명을 받은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선사해 주시어 가슴 가득 행복해졌습니다.

사집반 마지막 철을 앞두고 사교반으로 가는 길목에는 경을 볼 때 장애를 없애기 위해 대중스님들의 외호를 받으며 2박 3일간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했습니다. 입재 날 호제합장을 하고 강사스님께서 뿌려주시는 꽃비를 맞으며 시작한 기도는 환희로운 마음으로 손발이 꽁꽁 어는 추위에도 무사히 회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저희 절에서는 ‘아비라 기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능엄주와 108대참회, 호제합장을 하며 30분간

법신진연 ‘옴 아비라 흄 캄 스바하’를 외칩니다. 10분은 신심나게 하다가 20분이 넘어가면 자꾸 시계로 눈길이 가고 마지막 30분이 되어갈 때 즈음이면 일 분이 한 시간처럼 느껴지고 허리와 무릎에는 통증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고통도 사라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지니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 시간씩 하루 총 8번, 3박 4일간 진행되는 강렬한 기억의 기도였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이 모든 기도들이 대중스님들의 외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출가 전 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제가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매일 부르며 부처님과 조금씩 친해져 가면서 제 먹물 옷에도 향기가 배이고 있습니다. 거칠고 퍽퍽하게 느껴졌던 강원 생활도 조금씩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같은 일에도 힘이 덜어집니다.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먼 초심자입니다. 마음을 보다 긍정적으로,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한 자비로움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는 성장통 속에 있습니다. 작은 빗방울이 한 방울씩 끊임없이 떨어지면 놓히 바위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희망차지만 조심스럽게 내 안의 부처를 향해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부처의 눈처럼 놓히 중생의 고통을 보아라.

부처의 입처럼 놓히 선하고 현묘한 말을 하여라.

부처의 몸처럼 놓히 청하지 않아도 나서서 돋는 벗이 되어라.

부처의 마음처럼 놓히 이로운 일을 행하여라.

- 불광사 성운 대사 -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박지호 / 동양복스 단행본팀 편집팀장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마음속에 어떠한 슬픔이나 기쁨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지, 사실 그 사람에게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형적(多型的, variation)이다.

사람의 본질은 ‘시련이 닥쳤을 때’ 그리고 역으로 ‘행운이 주어졌을 때’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야 비로소 드러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 그 생각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일들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폐자부 현상, 즉 회사의 불합리함과 권위주의를 날마다 성토하던 사람이 어느새 선배, 간부, 혹은 사장의 위치가 되었을 때 그렇게 자신이 비판하던 대상과 똑같이(혹은 더 높은 강도로) 행동하는 일들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부모가 물려준 유산 때문에 좋았던 형제자매의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급기야는 다시는 못 볼 사이가 돼버리는 일은 얼마나 많은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작은 성공에도 함께 기뻐해주지 못하고 질투심이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버리는 경우는 어떤가? 강한 사람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자신보다 훨씬 약한 사람에게 풀어버리는 경우는 또 얼마나 흔한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대개 자신은 억울하며 강자에게 당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때때로 어떤 존재에게 ‘상대적’ 강자가 되어 (일부러, 혹은 본의 아니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잘 기억하지 않는다.

최근 영화 <귀향>으로 일본군 위안부(성노예)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에 대한 이슈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지만(물론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의 어이없는 합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의 여성들을 강간하고 학대했던 끔찍한 사건들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너의 본질은 얼마나 고상하기에, 이런 같잖은 인간 품평을 하고 앉았느냐고 되묻는다면 나는 여성학자 정희진의 말을 빌려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나의 본질(essence)을 생물학적 본능(instinct)으로만 채우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노력하는 인간, 그래서 방황하는 인간으로 살겠다고 말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라비언은 첫인상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시각 이미지가 55%, 청각 이미지가 38%를 차지하며 실제 언어에 대한 이미지는 고작 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메라비언의 법칙’이다.

하지만 나의 경험상 첫인상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은 얼마든지 흔들리거나 변질되거나 혹은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속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만큼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 또 있을까?

사람을 너무 쉽게 잘 믿어서 손해 본 일이 많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나는 또다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원래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도) 대충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1. 로또에 당첨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2.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요?
3. 당신이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됐을 때, 누구에게 연락할 건가요?

물론 이 세 가지 질문으로 그 사람의 모든 본질과 가능성을 째뚫어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인간관계, 꿈, 인생관,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즉 적어도 그가 ‘노력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간’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물살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힘에 겹고 버거우면 정상이다. 흐름에 몸을 맡겨 편안하게 산다면, 오히려 타성에 젖어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

시작의 계절이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낯설고 저항을 동반한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방황에 놀라지 말자. 한 송이 진달래조차 수없이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지 않는가! 주변에 ‘노력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간’이 늘어갈 때, 삶은 풍성해진다. 적어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지고 있다. ☺





아미타불 대만불교

지옥上 / 사교과

2016년 3월 3일 운문사 학장스님을 비롯한 60여 명의 학인스님은 태평양 위에 뜬 고구마모양의 나라 대만으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우리의 일정은 4박 5일 동안 중대선사 불광산사 자제공덕회 법고산사 등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현재 대만불교가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과 그 속의 정신과 사상을 순례하는 것이다. 빠르게 지나간 사십겨울방학에 뜻깊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대만이라는 나라의 낯설음을 자세히 보고 싶은 기대로 그렇게 성지순례는 시작되었다.



첫날, 대만 수도인 타이페이에 도착과 함께 버스를 타고 국립고궁박물관을 찾았다. 그곳은 중국역대 왕조의 보물 12,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는 70만 점 가량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작고 귀여운 찻잔부터 나무로 조각한 미인상까지 중국장인들의 뛰어난 예술성과 창조성을 느낄 수 있었다. 대만 거리를 지나면서 오고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는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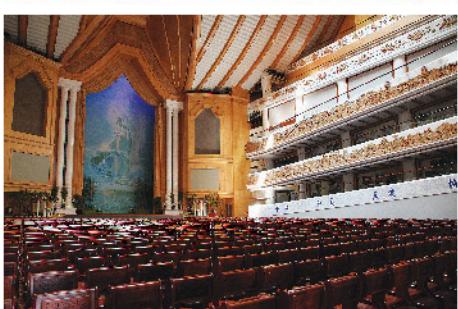


금 다른 대만의 문화가 느껴졌다. 그 중 오토바이운전자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신호등 앞에 섞여 있는 오토바이 무리는 미소를 짓게 했었다.

다음날은 중대선사로 향했다. 중대선사는 대만에 선종을 부흥시키는 데 큰 계기를 주신 유각 스님이 창건한 승가 교육기관이라고 하였다. 중대선사는 초등학교부터 승가대학까지 철저히 중대선사의 교육방침을 따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크고 웅장한 건축물은 계단 높이 불상의 개수 하나하나에 불교적 의미를 불여 설계하였다고 한다. 7층누각이 있던 건물을 내려오면서 건물의 창문으로 하얀 빨래가 널려 있는 것을 보았다. 학인스님들의 개인 방이라고 하였는데 중대선사 학인스님들의 평범한 일상을 떠올리게 하였다.

다음으로 항한 곳은 불광산사이다. 불광산사 역시 스님들의 교육기간이었다. 입구에 모셔놓은 포대화상과 넓은 도량을 보면서 그 규모를 짐작하게 했다. 불광산사 지객스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곳은 성운 스님이 교육도량으로서 먼저 창건한 절이었는데 점차 불교교단이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불광산사는 문화를 통한 불법포교,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자선을 통한 사회봉사, 수행을 통한 심신정화 4가지를 종지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저녁에는 불광산사 주지스님의 환영사를 받았고, 한국사람으로 대만에 출가를 하신 혜호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혜호 스님에게 들은 성운 스님의 가르침은 불광사 대중 속에서 수행이 소임이고 소임이 수행이라는 철저한 생활 속에서의 실천불교를 말씀하고 계셨다. 바로 운문사에서의 대중생활이 이 모든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었다.

다음날 새벽 6시 불광산사 대웅보전에서 대중 스님과 예불을 올렸다. 북과 경쇠소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거룩한 소리는 나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였다. 예불 후에는 발우를 떴다. 직사각형의 접시에는 파란나물과 당근볶음의 반찬을 담아 주었고, 접시 위로 두 개의 그릇에 두유와 하얀 빵을 주었다. 소박한 공양은 더욱 그 맛과 향기에 집중하게 하였고, 조용하게 공양하는 대중 속에서 발우공양의 엄숙함을 느끼게 했



다. 그리고 타인의 눈보다 나를 보게 되는 날카로운 시선이 그 속에 있기에 ‘대중 속의 나’라는 생각을 떠올렸다.

불광산사에는 불탑기념관이 있다. 불탑기념관은 팔상성도를 연상시켜 만든 여덟 개의 탑이 있었다. 각 탑 안에는 불보살님들을 모시고 있었고 탑을 지키는 스님과 보살님이 있었다. 각 전을 참배할 때마다 공손하게 “아미타불”하고 인사하는 예절은 듣고 따라하기 참 좋았다. 옥불전은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셔놓은 곳이었다. 하얀 옥으로 만들어진 와상의 부처님께서 웃으며 반겨주시는 듯 했다. 근엄한 분위기에 밀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며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참선으로 그 곁에 잠깐 머물렀다. 한국사찰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현대식 건축물 속의 불상을 대하여 목조건물의 부드럽고 따뜻함이 만들어 내는 한국의 불교문화를 떠올려보게 되었다. 불탑기념관 안은 도량이면서도 불자들이나 관광객에게는 넓은 정원의 편안한 쉼터처럼 보였다.

성지순례 4일차.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을 달려 화현시로 이동하였다. 이곳에는 이번 성지순례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게 된 자제공덕회가 있는 곳이다. 자제공덕회는 대만 비구니스님이신 중엄 스님께서 가난과 병듦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으로 일으킨 불교단체이다.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였다. 세계각국의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한 재난처에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2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머물기도 하면서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온전히 마음과 행으로써 자비롭고자 실천하는 모습은 나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남을 위하는 자비의 마음은 따로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특별함의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마음과 실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대만순례 마지막날에는 성엄 선사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 법고산사로 향했다. 스님들의 교육도량인 법고산사에서는 300여 명의 스님이 공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비탈진 숲속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부터 한적하고 차분한 도량의 분위기와 자연을 보호하는 그들의 정신



을 느낄 수 있었다. 대만불교는 검소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도 불법을 일으키셨던 큰스님들의 원력에 그 뿌리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교육을 통한 승가의 체계적인 발전과 자비를 실천하고 스스로를 단속하는 스님들의 철저한 일상 속의 실천수행이 많은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오늘날의 대만불교가 있는 것이라 짐작해 보았다.

운문사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대만 성지순례에 참여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불교를 배우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자비의 행은 모두를 이롭게 하고 모두를 이롭게 하려는 그 마음이 모이면 뜻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갖게 했다.

실천하는 수행자의 아름다운 가치를 느끼게 했던 이번 대만순례가 학인시절 견문을 넓히고 불교를 바르게 배워가는 과정에서 좋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㊱



대만 불교, 삼원三願의 힘

동우 / 대교과

대만불교의 역사는 길게 잡아 겨우 400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인구의 80%가 불교도이고, 그 대외적 위상도 대승불교를 이끈다 할 만합니다. 과연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법고산사에서 가져온 소책자에는 “개인이 스스로 한 가지 좋은 원을 세우면, 대중이 하나의 큰 원을 발하게 되고, 이러한 원을 행하여 환원하게 되면 각자의 모든 원을 함께 원만히 성취하리라.”라고 하는 성엄 큰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가하여 본인은 얼마나 좋은 원을 세웠던가에 대한 반성을 하며, 대만불교를 일으킨 몇 가지 힘, 그 원력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를 행하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에는 어떤 특별함보다 일상의 평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누구나가 “나는 특별한 ‘무엇’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조화와 화합이 가능할까… 주어진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수행 삼아 사는 그들에게서 “信爲道元功德母¹⁾”라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아직도 대신심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본인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첫째, 기원祈願의 힘 – 자연스러운 신심의 위대함

대만의 불교는 생활 불교입니다. 중대선사는 대만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 지부가 있고, 체계적으로 초·중고등 교육기관을 함께 부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기본 교육 과정 외에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경전을 배우고, 참선을 하며 불심을 키웁니다.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인재가 되어 불교계 혹은 나라의 동량이 됩니다. 중대선사의 역사가 담긴 사진을 침관하다보니 스님들이 직접 모든 불사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건축, 설계, 농사, 후원, 환경미화 등 수많은 대중 속에서 불사를 행하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에는 어떤 특별함보다 일상의 평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누구나가

1) 信爲道元功德母 長養一切諸善法(믿음은 도의 근본이며 공덕의 어머니, 일체의 착한 법을 장양한다.) 「화엄경」 현수보살품

둘째, 발원發願의 힘– 한계를 넘는 불가사의함

철 못을 단 한 개도 사용하지 않고 16층 만불전 안에 다시 우뚝 약사여래 5층탑을 세운 중대 선사. 기둥을 세우지 않고 건축된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규모의 공양간과 허름한 시멘트 도서관에서부터 시작해 불광대사전을 편찬한 불광산사.

종합병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400만 명의 회원과 자원봉사들로 구성되어서 가난 혹은 재난으로 고통 받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국제구호단체인 자체공덕회. 자신의 정화를 비롯하여 자연, 넓게는 우주까지의 환경보호를 주창하는 법고산사. 원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떠한 신비한 힘이었습니다. 과연 “한계”라는 것은 어디까지일까… 가는 곳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진 건축과 사업은 그대로가 불국토의 재현이었습니다. 4대 성지에는 네 분의 큰스님, 아니 대원력을 발하신 네 분의 보살의 화현이 있었고, 그들의 원력은 ‘無際’, 즉 한계가 없는 불가사의함이었습니다.

셋째, 환원還願의 힘– 자비와 평등의 실천으로 함께함.

오조 흥인 대사께서는 혜능이 남쪽에서 온 줄 알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남쪽 오랑캐들은 불심이 없다는데…?’ 이 말에 혜능은 ‘나라에 남북이 있을지언정 불심에는 남북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적 색채를 감추기 위해 아미타불보다 “지시앙(吉祥)”이라는 인사법을 유통시킨 법고산사, 태풍으로 쓰러진 교회를 복원시켜준 자체공덕회를 돌아보면서 재가자와 출가자 그리고 비구와 비구니, 나의 종교와 타종교가 차등이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체공덕회의 보살 십계에는 不殺盜飲妄酒 이외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정치적인 폐모에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나라 전체에 여인들이 몸을 파는 곳이나 술집이 거의 없고, 일회용품 사용 절제운동이 불교계에서 주창한 윤리 도덕 운동에서 비롯되었다니 불법의 위신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참배한 법고산사의 불교서점에는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문구류들이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것은 그 작은 문구 하나, 그럼 하나에 우주를 다 담아내었습니다. 역동적인 스님, 재가자, 갖가지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꽃, 나무까지 다 함께 부처님 설법을 듣는 그림이 그려진 예쁘고 귀여운 문구들이 한국 돈 1000원 정도였습니다. 짧은 역사의 대만 불교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평범하고 작고 큰 원력들이 모여서 함께 발원하고, 人間! 즉 사람사이로 환원하려 했던 것이 가장 큰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4대 성지를 돌아보는 동안 개인적으로, 우물 안 개구리가 단숨에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을 만큼의 신심도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어깨를 누르는 어떤 책임감, 한국 불교의 미래와 지금 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대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과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또한 큰 집에서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불교가 아닌 찾아 나서는 실천 불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성지순례의 기회를 주신 회주스님, 학장스님, 주지스님 및 여러 어른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범륜상전! 항하사와 같은 무궁한 부처님의 풍덕이 한국 불교와 이 세계, 전 우주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발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드라망의 세계

– 유기체 세계, 인식자로서의 인간 –

성목 / 운문사 한문불전 대학원 2학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인간을 위해 죽어가고 있는가?

2005년에 개봉했던 영화 “아일랜드”는 이러한 물음을 강하게 던져준 영화라 여겨진다.

영화에서 지구 종말의 생존자라고 세뇌를 받으며 오염된 지구에서 벗어나 유일한 희망의 땅 아일랜드에 갈 수 있는 추첨을 기다리던 주인공은 어느 날 창을 통해 들어온 나비를 쫓다가 커다란 기계 속에서 인간들이 배양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고, 더구나 자신들이 장기 이식에 필요한 복제인간임을 알게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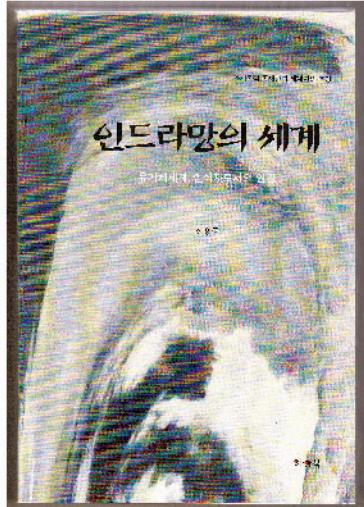
그때 그 끔찍했던 장면들을 보며 인간들의 이기심에 술렁던 생각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리고 그때 그 의뢰인의 집에 주인공이 찾아 왔을 때, “왜 내 상품이 나와서 다니지?” 하던 말, ‘상품’ 이라니.

이 책에서는 나 자신까지도 상품으로 시장에 내던져지고 있는 현실의 배경에는 창조론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작가는 “여기에는 창조자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자연이든 인간이든 모두 창조자에게 귀속되고 서로에 대해 독립된 개별 존재이다.”라고 하여 인간의 상품화조차도 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기계문명과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사회, 한쪽에서 넘쳐나는 음식 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한 것도 소비가 미덕이라는 미명하에 함부로 버려지며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 이상기후들, 한쪽에서는 전쟁과 기아, 가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저자는 세계의 실재에 대한 물음에서 동양의 인연 연기와 서양의 인과법, 물리세계와 유기체 세계, 창조론의 세계관과 전환론(관계성으로서의 인연연기)의 세계관을 비교하였다. 특히 인식자로서의 인간 존재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오온연기, 자아와 윤회, 공과 무아를 말하고 인간의 동반자로서의 자연이라는 생명윤리로 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어릴 적 살던 집 옆에 작은 도량이 있었다. 평소에는 물이 없어서 동무들과 모래로 장난도 하고 공깃들을 찾아 놀았는데 비가 와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어디서 왔는지 물고기도 생기고, 다술기에 개



구리까지. 참으로 희한해하고 신기해했던 생각이 난다.

아, 자연이란, 생명이란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가! 생명이 살 것 같지 않던 사막에도 풀이 자라고 봄이 오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조건과 환경이 되면 모두가 생겨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시하고 있다. 그 당연시는 나와 내 주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이다. 인간도 자연이라는 것을. 자연에서 나고 자연 속에서 살며,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책의 제목인『인드라망의 세계』는 곧『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중무진법계를 뜻한다. 제석천이 사는 도리천에 인드라라는 그물이 있어 그물코마다 유리 구슬이 달려서 중중무진으로 겹쳐지며, 모든 사물을 다 비추어 낸다는 것이다.

“비단 도리천이 아니더라도 세포 단위의 유전자가 전체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부분과 전체가 卽하고 依하여 있는 인간의 신체가 인드라망이며, 원인과 결과가 무한히 연속되어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가 별개일 수 없는 이 세계가 또한 인드라망에 다르지 않다.”

작가는 현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불교의 “인드라망의 세계”에서 그 해법을 찾아 날날이 검증하고 있다. 윤이흠 서울대 교수가 추천의 글에서 말하였듯 “삶의 모든 영역에 관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논리적 전개의 차원에서 활달하고 명쾌한 논조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어 일반적인 종교서적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한 것처럼 말이다.

비 갠 후라 목련꽃이 금방 벌어질 듯 얼굴을 내밀고, 매화향기 온 도량을 감싸고 있다. 그 향기에 취해 차 한 잔 마시는 나는 곧 “인드라망의 세계”인 것이다. ☺

목련 유감

본질은 무엇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이 교조화되는 것도, 우상으로 숭배되는 것도 버리지 않았으셨다. 자등명 法燈明, 부처님의 유언이다. 외부에 고달리던 마음을 돌이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을 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나온다. 세상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야말로 스(승)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다지도 완벽한 목련은 본 적이 없다. 매년 이맘때면 꽃을 시샘하는 날씨로 그 순백이 피기도 전에 겨우 변하곤 했었다. 바닥에 떨어지면 그 참담함이란… 그야말로 수모에 가깝다.

옛 기억을 떨쳐내며, 나무 밑에 들어가 꽃그늘에 파묻혀 본다. 그야말로 신선의 경지! 황홀하단 표현이 적확하다 할까, 카메라 셔터가 바쁘다. 다른 이들에게도 이 아름다움을 선사해야지… 그러나 한편 절망적이도록 아쉬운 마음이다. 모양을 전할 수 있다고 해도 이 향기,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불조佛祖의 마음 또한 이와 같을까? 중생에게 아무리 설명해본들 스스로 체득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스스로 수행할 뿐.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다. 목련 나무 아래서의 그 느낌을 달콤하다고 해야 할까, 매혹적이라고 아니면 우아하다고… 그 어떤 표현도 제대로 내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없다.

다행히 지나가는 도반의 얼굴이 보인다. 서로 보고 웃으면 그 뿐. 말이 필요 없다. 이 아름다움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반가웠다. 염화미소拈花微笑, 부처님께서 들어보이신 꽃에 가섭 존자는 웃음을 지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 계합契合되었을 때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았을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수행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부처님 당시와는 많은 것이 변했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을 두고 무성한 말들이 오간다. 계율이 무너지고 있고, 깨달음은 그 존재여부를 의심받을 정도로 요원하며, 더 이상 아끌어 줄 선지식

조차 찾기 힘들다. 예전 어른들처럼 치열하게 공부하지도 않지만,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점검조차 막막한 지금이다. 누구를 의지한다기보다 지표로 삼을 만한 룰 모델(role model)의 부재不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출가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가, 진정한 수행자 하나면 수백 개의 홍보동영상이나 광고가 필요 없을 것이다. 마치 아이들이 자랄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면서 출산만 장려하고 있는 꼴과 무엇이 다른가. 저출산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치안에 힘쓰고, 물가 안정, 교육제도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이며, 꿈과 희망,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시급하다. 급하게 출산장려금 같은 미봉책을 내놓기보다는, 크게 보고 조직적인 대책과 꾸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본받을 만한 수행자가 있다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 포교를 따로 나누어 생각할 것 없이 충실한 수행자로 커나갈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일부에서는 사찰관리인이라는 비난 아닌 비난도 한다. 부처를 팔아먹는 장사치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세상의 흐름에 귀막고 현실은 나 몰라라 산속에 처박히기도 힘들거니와, 세상 사람들처럼 재능을 발휘하고 SNS를 비롯한 많은 매체를 이용, 연예인처럼 포교를 하는 것도 가히 짚고 싶은 본보기는 아닐 것이다. 힐링이란 이름 아래 명상에 다가가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진다. 예전처럼 목탁만 치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이 시대적 요구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본질은 무엇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이 교조화되는 것도, 우상으로 숭배되는 것도 바라지 않았으셨다. 자동명 法燈明自燈明, 부처님의 유언이다. 외부에 끄달리던 마음을 돌이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을 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나온다. 세상에 아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시대를 아꿀 수 있는 그야말로 스(승)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승려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은 1913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조선불교유신론』에서 한국 불교가 쇠퇴한 이유는, 불교 지도자들이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려 있다’ 같은 미신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스님은 한국 불교의 개혁을 이끌 원칙으로 오직 자신만을 믿고, 오로지 자신을 탓하며,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삭발염의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목련꽃 향기처럼 곱씹고 또 곱씹는다. ♪

운문소식



• 2월 1일 명성 화주스님을 비롯한 어른스님들께서 2박 3일 일정으로 통영 문화탐방을 다녀오셨습니다.

• 3월 11일 봄철개학공사 및 종무국장 도현 스님(45회출업), 대학원 5명, 숭가대학 17명, 편입생 2명 반부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대중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무장부에를 발원하는 신중기도 입재가 대웅보전에서 있었습니다.

• 3월 12일 법계장학금 수여식이 종무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13일 3일간의 신중기도 회향 후 산불예방 소금묻기를 하였습니다.

• 3월 14일 수업이 시작되었고, 2차 신입생 7명 반부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21일 치문반스님들이 사리암과 문수선원을 참배하였습니다.

• 3월 24일 어른스님들과 대학원스님들께서 전국비구니회 9차정기총회에 다녀오셨습니다.

• 3월 25일 봄철 첫 自恣에 어른스님 문화탐방 및 대만불교연수 보교회가 있었습니다. 선화, 서예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3월 26일 치문반스님을 위한 도량안내가 있었습니다.

• 3월 29일 화엄반스님들의 탁발이 대구, 동곡, 부산, 경주에서 있었고, 소중한 보시금은 마하파자파티 불교대학, 군부대 포교비, 노인정, 복지관, 무료급식소 등에 나누어 회향하였습니다.

제14교구본사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봉행된 제3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 일진 학장스님께서 니 존중아사리, 교수사, 갈마위원으로 참석하셨으며, 52회 출업생이 수계하였습니다.

• 3월 30일 북경에서 오신 여산 스님의 고금古鑒연주와 해설이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4월 3일 고산 큰스님 법문이 대웅보전에서 있었습니다.

• 4월 4일 신입생 부서 설명회 및 환영회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9일 삼월 삼진날 연례행사인 처진 소나무 막걸리주기가 있었습니다.

• 4월 12일 제24회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이 봉녕사에서 있었습니다. 일진 학장스님께서 갈마위원으로 참석하셨고, 사교반 32명이 수계하였습니다.

• 4월 17일 대자원법회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4월 24일 운문사 자원봉사 불자님들의 첫 성지순례로, 석종사 해국 큰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안내는 일진 학장스님, 은광 강사스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 4월 26일 故원해당 홍률 전 학장스님 1주기가 어른스님들과 출업생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으며, 오후에는 전국 비구니 숭가대학 교수스님들의 모임인 교우회가 있었습니다.

• 4월 30일 대구 달구벌 관동놀이에 화엄반스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 5월 1일 自恣 및 방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5월 2일 28일간의 봄철 방학이 시작됩니다.



▲ 치문반스님 시리암 참배



▲ 자비의 이웃돕기 탁발



▲ 고산 큰스님 법문



▲ 처진 소나무 막걸리주기

도와주신 분

• 송복자 • 지호성 • 김형태 • 노기용 • 이병석 • 이기태 • 삼신사 • 정해옥
• 광주정안사 • 이정숙 • 양명희 • 신현섭 • 장익수 • 해인사고불암 • 노계임
• 최희영 • 김경자 • 윤금자 • 이유진 • 이월례 • 덕인스님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사진첩

봄을 맞아 편집실을 정리하다가 옛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봄은 그렇게 있었구나!!
사진 속의 스님들께서는 너무나 고우십니다.
공교롭게도 이번호의 글을 써주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시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